

문병란 시인 삶·문학정신 기리는 서은문학제



‘직녀에게’ 한국판(왼쪽)과 일본판

올라도 올라도
다 못 오르는 산
(중략)
누가 감히
무등산을 다 오르다 하리요?
올라도 끝내 다 오를 수 없는 그 높이에서
안아도 끝내 다 안을 수 없는 그 폭속에서
천 년 응어리진 잿빛 어둠을 찢고
한 마리 자유의 불새가 날개를 편다

문병란의 ‘무등산’에서



문병란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숙희 ‘인연서설’, 강명숙 ‘꽃의 묘비명’, 김인숙 ‘내게 길을 묻는 사랑이여’가 펼쳐진다.

이어 ‘직녀에게’(김정훈·히로오가 역음) 한일 공동출판 기념회가 진행된다.

시집을 일본어로 번역한 히로오가 주오대 교수의 회고사, 김준태 시인의 답사가 예정돼 있으며 홍영숙 서은문학시낭송회장이 ‘직녀에게’를 낭송한다.

다음 순서로 서은문학 회원 신인상 시상식 및 환영회가 펼쳐진다. 황일봉, 문명기, 손형섭, 윤정숙, 이운수, 이강래, 정준자, 손형섭 등 8명에게 신인상이 수여된다.

2부 ‘화합의 장’에서는 노래, 우리춤, 시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두드림 퓨전 난타’는 신명나는 복소리 공연을 하고, 가수 김원중은 ‘직녀에게’ 등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숙자 낭송가의 ‘희망가’ 낭송, ‘우리춤 나르샤’의 우리춤 공연, 하모니카를 닮은 사람들과 김선호의 연주가 펼쳐진다. 양기준, 이돈희, 박연주 등은 시극 ‘전라도 빠꾸기-문병란’을 공연한다.

3부 교제의 장에서는 석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3601-1580, 010-3609-7576. /박성천기자 skypark@

16일 광주 동구청 대강당서 다채로운 행사

‘직녀에게’ 한일 공동출판 기념회·시낭송회

문병란(1935~2015) 시인은 생전에 서석동(瑞石洞)에 은거한다는 뜻으로 서은(瑞隱)이라는 호를 썼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시인 문병란”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의 시 ‘무등산’에는 광주의 정신과 의로움이 투영돼 있다.

서은(瑞隱)문병란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서은문학제가 열린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가 주최하는 2017년 서은문학제가 16일 오후 3시30분 광주 동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송년 모임을 겸해서 열리는 이번 문학제에는 ‘직녀에게’ 한일 공동출판 기념회, 재

창간된 ‘서은문학’(통권3호) 출간기념회, 서은문학 회원 신인상 시상, 시낭송회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짜여졌다.

홍영숙 서은문병란연구소 운영위원의 사회로 문학제가 진행되며 황일봉 이사장

인사말, 임원식 광주문협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장병완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서은문학 출판기념회는 황일봉 이사장의 발간사와 허형만 시인의 격려사에 이어



‘사랑을 주세요’

14~25일 ‘사랑을 주세요’·29~30일 ‘변신’ 공연

극단청춘이 12월 겨울 연극축제로 가족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Fam 시리즈 2017’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연극 ‘사랑을 주세요’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은 연출가 오설균이 연출을 맡았으며 고난연, 김은미, 김경오, 현지우, 장은지, 김지민 등이 출연한다.

‘사랑을 주세요’는 서로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 특히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자신의 삶을 최고의 법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 노인과 강한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들.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이라는 테마로 아이들의 눈을 통해 따뜻하게 보여진다.

다음으로, 연극 ‘변신’을 준비했다.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30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예술극장 통.

대구지역 연극팀인 ‘극단고도’가 제작한 연극 ‘변신’에는 예병대, 정이삭, 윤규현, 강영은, 박세향, 김정현, 김현성 등이 출연한다.

‘변신’은 어느 가까운 미래에 회사원들이 물건으로 변하는 사태를 통해 이 시대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담은 작품이다. 티켓가격은 두 작품 모두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이다. 문의 062-430-5257. /전은재기자 ej6621@

제2회 ‘빅마마 소리 콘서트’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제556회 목요일국악한마당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초청 제2회 ‘빅마마 소리 콘서트’ 공연이 열린다. 14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주소연 명창

이번 공연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 주소연 명창의 사회를 시작으로 ‘박종선류 아쟁산조 병주’,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국악가요 ‘그 땅 그 하늘’, ‘시집가던 날’, 단막극 ‘어사 상봉 대목’,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선보인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는 1933년에 설립된 조선국악연구회의 후신인 (사)한국판소리보존회의 이념과 목적을 지향하며 판소리의 전승 및 보급발전에 기여하고자 판소리 및 민속예술의 전수교육, 연구발표(창작포럼)회 등을 실천하는 단체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학상·전남문학상 수상자 발표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가 주관하는 제30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백수인·오승준 시인, 임인택 수필가 선정됐다. 올해의 작품상에는 조민희 시조시인이 선정됐다.

광주문인협회는 최근 심사를 갖고 올해의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수인 시인은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에서 탁월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서정’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벗어던지는 처절하고 철저한 존재론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승준 시인은 ‘엄니 보러 간다’에서 끊임없는 각성 자각을 토대로 맑음과 선함, 밝음과 깨끗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인택 수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를 새로운 해석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떨어졌다.

조민희 시조시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심성과 정조에 맞닿은 가락을 유지하면서도, 그 형틀에 현대적 정감을

밀도 있게 표현했다는 평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KT타워 4층에서 열린다. 문의 062-227-0811.

전남문인협회(회장 박형동)도 올해의 전남문학상 수상자로 정관웅·임춘임 시인, 김대자·김승환 수필가 등 모두 4명을 선정했다.

정관웅 시인은 문예사조로 등단 후 활발한 ‘강물이 되고 싶다’ 등 작품집을 펴냈으며 강진문인협회장, 전남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장성 출신 임춘임 시인은 시사문단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모가 엄마해 줄래?’ 등을 발간했다. 전남문협 사무국장, 장성문협부회장, 전남문화관광해설사 장성지회장으로 활동했다.

함평출신으로 문학춘추로 등단한 김대자 수필가는 무안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김승환 수필가는 순수문학으로 등단 후 나주문인협회장, 전남문협 감사로 활동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8270-1023. /박성천기자 skypark@

문학적 성향 가장 높은 대통령은 노무현

2018년 ‘책의 해’ 설문

노벨문학상 1순위 고은

문학적 성향이 높은 역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사진) 전 대통령이 꼽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문학 전문 매체 ‘문학뉴스’는 2018년 ‘책의 해’를 맞아 설문조사 업체 마켓링크에 의뢰해 국민 109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27일 벌인 설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학적 성향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인물”로 응답자의 39.0%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29.8%), 문재인 대통령(11.4%), 박정희 전 대통령(8.2%), 김영삼 전 대통령(5.8%) 순으로 꼽혔다.

“국내 문인들 가운데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8.6%가 고은 시인을 꼽았고, 한강(23.8%), 황석영(19.9%), 김훈(9.6%) 작가가 뒤를 이었다. 향후 10년 내 국내 문인 중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5.4%가 “없다”, 31.9%가 “있다”, 32.7%가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문학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작가로는 조정래(35.8%), 고은(24.9%),



이문열(18.9%), 김훈(14.4%) 순으로 꼽혔다.

“최근 한 달간 책을 읽은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64.1%가 “있다”고, 35.9%가 “없다”고 했다. 평균 독서량으로는 한 달에 1~2권(59.4%)이 가장 많았고,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도 23.9%나 됐다. 도서관입회비는 66.8%가 한 해 동안 10만원 미만으로, 2%가 10만~20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또한 도서관제에 관해서는 58.2%가 “폐지해야 한다”고, 24.2%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0%p이다. /연합뉴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불박이,욕실,마루,창호,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